# 라이프스타일의 문화정치학

## 사스 · 조류독감 · 광우병 그리고 웰빙에 대한 단상

서 동 진 · 문화평론가

### 환자가 사라지고 있다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와 광우병(소 해면상뇌증),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 등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질병들이 출몰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 따르면 매년마다 몇 종씩 새로운 질병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질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고통을 겪는 환자의 모습이 아니다. 질병은 범람하지만 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 이런 '환자의 실종'은 근대의학이 지배하던 한 세계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뜻하는 징후인지도 모른다. 결핵, 암 그리고 심지어 에이즈는 근대의 전형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전형적인 질병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그 질병들이 질병을 겪는 사람이 등장하는 무대를 만들어냄으로써 질병을 극장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난 세기동안 질병을 견딜 수 있었다. 이는 질병의 물질적인 고통을 견딘다는 뜻이 아닐 것이다. 통증 자체는 괴로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속한다. 참수형을 당하며 즐겁게 웃는 죄수의 모습이나 인류학자들이 보고하는 원시부족사회의 병을 앓는 사람의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고통은 곧 괴로움이라는 판단을 유보하도록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세기에 질병은 삶의 자질, 혹은 성격으로 주제화되고, 질병을 겪는 사람은 질병을 앓음으로써 특별한 정서와 몸짓, 말투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질병을 겪는 사람을 심미화함으로써(문학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폐결핵환자들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질병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런 근대의 질병의 에토스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병자들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스나 광우병, 조류독감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결핵과 암 그리고 에이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홍조를 띤 수척한 결핵환자의 모습이나 기괴한 암종을 거느린 암환자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카포시 육종과 수용소 군도의 유태인을 연상시키는 비쩍 마른 에이즈 환자의 모습은 질병 자체를 가시화한다. 그 질병들은 드러난 무엇, 표명된 무엇이었다. 그 무엇이란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이라는 두려운 대상이 대리하고 있던 불안이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 깊이 물든 의학적 지식 역시 질병을 설명하여 주지만, 그것이 질병을 겪는 사람과 그를 지켜보는 사람의 관계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짐짝처럼 다루는 의사들에게 늘 불만을 터뜨리고, 냉정한 관료적 태도의 간호사에게 반감을 품는다. 우리는 질병을 앓는 사람이 겪는 무력감과 외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을 앓는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질병을 향해 우리가 품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는 것이다. "여기에 그 질병의 적나라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질병의 드러난 모습, 질병과 동일시된 질병을 앓는 환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질병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질병에 투여한 우리의 사회적 상상이기 때문이다. 질병은 보여질 수 없지만 우리는 환자를 통해 질병을 '본다'. 그러므로 환자의 모습은 질병을 상연함으로써 질병이 던지는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제

웰빙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규칙과 타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많이 더 빨리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 우리는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하며, 방부제와 화학물질이 가득한 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이고 실시간(real time)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명의 합리성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효율과 성과를 보장하는 유일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여 준다. 우리가 환자에게서 보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 그들은 저 병에 걸렸을까, 질병을 겪는 자는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일까" 따위의 물음에 대한 답이다. 질병은 죄로서, 혹은 일탈로서 여겨지고 그것은 우리가 겪는 혼란스런 체험을 설명해줄 원인이 된다. 즉 질병은 곧 자신이 겪는 사회적 위기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틀을 마련해준다. 이런 점에서 광우병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은 매우 특징적이다.

### 자연의 역습? – 질병을 '보는' 히스테리컬한 주체

광우병에 우리가 경악하는 이유는 그 질병의 증상(스펀지처럼 바뀐 뇌, 무언가에 홀린 듯한 비칠거리는 걸음걸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광우병은 이미 우리의 상상 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질병이고, 바로 그것이 도착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놀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광우병은 우리가 스스로 은연중에 품어왔던 자연을 향한 죄의식을 건드린다. 광우병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상투적인 도식은 '자연의 앙갚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자연 섭리의 파괴, 생태계의 온전한 사슬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편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소 · 양 등의 죽은 가축의 고기와 골분으로 만든 사료를 먹여 좀더 빨리 성장을 촉진하고 살을 찌우려했다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광우병이라는 징벌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같은 히스테리컬한 죄의식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쁜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때 그것은 집단적인 광기가 될 수 있고, 끔찍한 폭력과 차별의 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향한 윤리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징후를 향해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다. 저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질병을 그 누군가로부터 발신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 끊임없이 자신이 알고있는 자신이 맞는 것인지 되묻는다. 그때 질병은 그런 우리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듯, 미끼가 되어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우리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 하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환자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질병을 겪는 고통스런 환자를 향한 연민의 공감 때문일까? 질병을 앓는 환자의 고통스런 모습을 제시하는 잔인한 카메라의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일까? 그러나 이는 수갑에 묶인 채, 검찰에 출두하는 혐의자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흐릿한 화면으로 처리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죄수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표면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화면에서 지우지만, 그것은 일종의 윤리적 트릭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감옥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세계란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느와르든 아니면 조폭영화든 그 어느 곳에서나 어떤 법률적

금지에도 구애받지 않은 채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관의 모습을 본다.

죄수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지우는 것은 결국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겪는 불편함을 가리는 장막 아닐까? 우리는 그럼으로써 그의 손목에 채워진 이물스러운 구속장치가 환기시키는 우리의 폭력 – 우리가 사법적인 질서와 공공의 안녕이란 이름으로 위임하고 인정한 폭력 – 을 향해 거리를 두고 나아가 그것을 안전하게 외면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지금 광우병과 사스, 조류 독감에서 우리가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는 태도 역시 바로 그러한 윤리적 냉소주의를 표현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환자의 실종'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우리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심연,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완전히 의식 안에 집어넣을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간극을 지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질병은 불안의 모습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그 불안을 가시화한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특정한 눈길을 던진다. 그 눈길은 환자의 모습 가운데 일부를 다른 것으로부터 떼어내어 특권화시키며 (결핵환자의 열기에 따라 변화하는 뺨, 에이즈 환자의 앙상한 팔 따위) 그를 보여지는 대상으로 바꾸어낸다. 따라서 질병을 앓는 본연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앓는 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불러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염병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 역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눈길에 은폐된 채 존재한다는 데 대한 불안때문 아닐까. 나와 접촉하고 있는 그가 과연 나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을까. 우리는 그 불안을 물리치기 위해 그를 환자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문화적 풍경 안에서 출현한다.

### 웰빙의 문화 – 포스트모던 냉소주의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환자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그같은 불안을 충분히 제압하였고 또 극복하였기 때문에, 환자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병을 앓는 환자가 병상에 누워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를 우리의 눈길 속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질병을 통해 극복해야 할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출구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웰빙'은 혹시 그런 출구 아닐까. 웰빙은 농약과 화학 비료에 오염된 식탁에서 탈출하고자 한다. '패스트푸드'가 아닌 '슬로우푸드'를 먹고 화학적으로 처리된 음식이 아닌 '오가닉 푸드'를 먹는 것, 그리고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 그렇지만 웰빙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혹은 라이프스타일이 정작 겨냥하는 것은 히스테리로부터의 해방일 것이다. 웰빙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규칙과 타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많이 더 빨리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 우리는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하며, 방부제와 화학물질이 가득한 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이고 실시간(Real Time)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명의 합리성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효율과 성과를 보장하는 유일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웰빙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이 초래하는 끈덕진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들은 사스와 광우병, 조류독감이 던지는 기괴한 불안과 대면하기를 거부한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지? 어떤 재난이 닥친 것일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암호와도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된 질병을 향해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그 물음 안에서 우리가 세계와 맺는 관계를 반성하는 공간을 열어놓게 된다. 다시 말해 그러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그 질병이 환기시키는 자신과 세계 사이의 틈새를 확인한다. 자신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당연시하던 믿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우리는 자신이 품고있던 세계를 바라보던 태도를 반성한다.

그러나 웰빙의 유행은 그같은 히스테리적 불안을 회피한다. 우리는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고 체험하던 방식을 반성하는 듯하지만 그러한 반성은 지극히 피상적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화학비료, 방

사스와 광우병, 조류독감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음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러한 질병이 초대하는 나와 세계 사이의 심연을 두려움 없이 대면하는 것이다. 그 심연을 다른 무엇으로 메우고 회피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불안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부제, 화학조미료와 같은 유해첨가물들에 의해 오염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특정한 사회적 질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었고, 자연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물의 권리를 긍정하지 않는 기업가와 상인들의 과오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염물질에 의해 중독된 먹거리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지만 그러한 먹거리를 양산하는 경제적 체제와 그 안에 작동하는 사회적 명령을 변화시킬 생각은 포기한다. 그러한 사회적 명령은 곧 자신이 불가피하게 연루된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웰빙은 그러한 불편한 물음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낸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와 같은 물음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웰빙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웰빙은 우리에게 마음껏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선물한다.

따라서 웰빙의 핵심적인 특성은 질병이 만들어 내던 히스테리적 긴장을 지워버린다는 점에 있다. 질병, 특히 전염병은 공동체에 속한 주체들을 윤리적이면서 또한 정치적인 물음 앞으로 끌어낸다. 그리고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공동체의 차원과 연루되어 있는지 들춰낸다. 웰빙이 겉으로는 반문명적이고 심지어는 반기업가주의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반사회적인 개인주의적 소비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지방 식단과 채식주의, 요가와 선, 일광욕으로 충만한 캘리포니아적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주의를 비판하는 새로운 소비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사스와 광우병, 조류독감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음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러한 질병이 초대하는 나와 세계 사이의 심연을 두려움 없이 대면하는 것이다. 그 심연을 다른 무엇으로 메우고 회피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불안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